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 제네바서

10일부터 11일까지 중미 경제무역 중국측 수장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하립봉은 미국 재정부장 베센트, 무역대표 그리어와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쌍방은 1월 17일 중미 정상 통화의 중요한 공감대 실행을 둘러싸고 솔직하고 협력 공간을 갖고 있으며 양국 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다. 발전단계, 경제제도가 다른 두 대국으로서 중미 쌍방이 경제무역 협력에서 의견 차이와 마찰이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관건은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감대를 지점으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무역전쟁에는 승

자가 없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기어코 중국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중국은 견결히 반제할 것이며 끝까지 맞설 것이다.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호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세계경제성장에도 유리하다. 쌍방은 협력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협력 목록을 늘어 협력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 중미 경제무역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더욱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회담 공동 성명

중화인민공화국정부(중국)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미국)는 양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양자 경제무역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이며 호혜적인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쌍방의 최근 토론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협상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쌍방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상호 개방, 지속적인 소통, 협력과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

양측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1) 2025년 4월 2일 제 14257호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중국 상품(항항특별행정구와 오문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대한 추가 징수의 증가(从价) 관세를 개정한다. 그중 24%의 관세는 초기 90일내 실시를 잠시 중단하는 동시에 이 행정명령의 규정에 따라 이들 상품에 대한 나머지 10%의 추가 징수를 보류한다. (2) 2025년 4월 8일 제 14259호 행정명령과 2025년 4월 9일 제 14266호 행정명령에 따른 이들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징수를 취소한다.

중국은 (1) 관세세칙위원회가 2025년 제 4호에 규정한 미국 상품에 대한 추가 징수 증가관세를 상응하게 개정한다. 그중 24%의 관세는 초기 90일내 실시를 잠시 중단하는 동시에 이들 상품에 대한 나머지 10%의 추가 징수를 보류하며 관세세칙위원회가 공고한 2025년 제 5호와 제 6호에 따른 이들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징수를 취소한다. (2)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2025년 4월 2일부터 미국에 대한 비관세반제조치를 잠시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상술한 조치를 취한 후 쌍방은 기제를 구축하여 경제무역관계에 대해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 중국측 대표는 국무원 부총리 하립봉이고 미국측 대표는 재정부장 스킵 베센트와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이다. 협상은 중국, 미국 또는 쌍방이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 수요에 따라 쌍방은 관련 경제무역 의제에 대해 사업 차원의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 신화넷

캘리포니아주 주장 : 관세정책, 미국 경제대국 지위 상실케 할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장 개빈 뉴섬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미국정부를 비판, 미국정부의 현재 관세정책이 "미국의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섬은 미국 전역에 30초 정도의 영상을 배포, 미국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수입을 방해하고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몇달후 사람들은 책가방과 크리스마스 장난감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관세가 미국 가정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섬은 미국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한 주인 캘리포니아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캘리포니아가 "무역 장벽을 줄이고 미국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관세정책은 이 모든 것을 해치고 있는바 물가 상승과 항구 정체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뉴섬은 트럼프정부 취임 이후 관세정책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여러차례 비판했으며 캘리포니아가 관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단언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이기도 하다.

/ 신화넷

파키스탄과 인도, 휴전 선포



10일,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몰탄에서 사람들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휴전을 축하하고 있다. / 신화넷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 달 하크는 10일 소셜미디어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즉각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 외교비서 당송승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 협의를 달성했다고 선포했다. / 신화넷

이재명, 한국 대선후보로 등록

10일,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 등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재명 대선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4월 27일, 이재명은 89.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한국의 새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에 거행될 예정이다. / 신화넷

김문수, 한국 대선후보 지위 회복



3일 한국 고양에서의 김문수 / 신화넷

10일, 한국 집권여당 당원들이 투표표를 통해 대선후보 교체 방안을 부결하면서 김문수후보가 즉각 당 대선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 집권여당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대선후보이며 전 국무총리인 한덕수측이 지난 5월 9일 밤 진행한 대선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국민의힘은 이날 심야에 의원총회와 선후보 비상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10일 새벽까지 지속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문수후보 선출 무효화, 새 후보자 선출 의결, 한덕수후보 입당, 한덕수후보 재선출 등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의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11시간에 걸쳐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당 지도부는 투표를

실시할 때만 해도 무난한 가결을 예상했다.

그러나 밤 11시에 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 열어 확인한 투표 결과는 기대에 달랐다. 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로 불렸으나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수석 대변인 신동욱은 밝혔다.

결국 김문수는 11일 대선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을 대표해 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서 이미 물러났다.

한덕수는 1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김문수의 대선 출마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는 11일 오전 한덕수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는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 국제방송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중한 80여년 우정의 산증인

중경시 유증구에 가면 녹색 나무들 사이로 푸른 벽돌과 회색 기와로 이뤄진 건물 하나가 보인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진렬관이다.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진렬관은 중국내 한국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중 최대 규모이다. 이곳은 항전의 포화 속에서 중한 양국이 함께 싸운 지난 세월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굳건해진 양국간 우정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난 1910년 8월, 한일 강제병합이 이뤄지자 수많은 항일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몸을 옮겼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 수립,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이곳저곳을 떠돌다 최종적으로 중경에 정착했다.

"중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내 독립운동을 음지에서 양지로 전환시키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곳이다. 중경 임시정부 때는 정치와 군사 체제가 완비되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진렬관 책임자 하설은 이곳의 벽돌 하나, 기와 하나가 모두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소개했다.

전쟁의 불길에 치솟던 그 시절, 다른 한편으로 중한 양국은 운명이 얽히고 우정이 뿌리내린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진렬관 앞에 가면 중국어·한국어·영어 3가지 언어로 '대한민국



4월 22일, 중경시 유증구에 자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진렬관. / 신화넷

임시정부'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눈에 띈다. 진렬관 내부에 들어서면 한

글로 된 <독립선언문>과 누렇게 빛바랜 중문 신문이 시공간을 초월하



4월 22일, 관광객들이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진렬관에서 '세계반파쇼전쟁중 중한 녀성의 빛'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 신화넷

/ 신화넷